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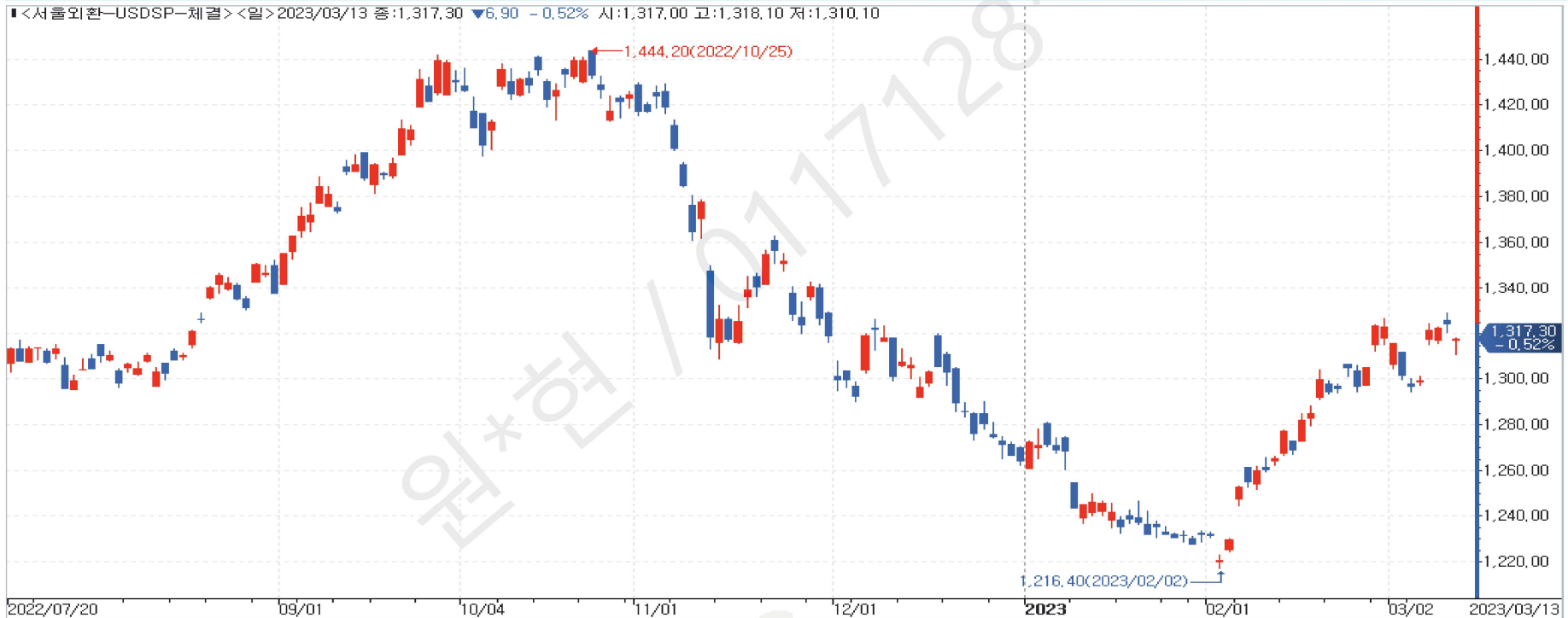
2023. 3. 13

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3/6~3/1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상 강화 우려 속에 일부 연준 위원들의 25bp 금리인상 적절성 언급 등이 위험 선호을 상대적으로 부각함에 따라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중국 양회에서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 제시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동조 흐름 후, 수급에 따른 등락 보이며 1,300원대 근접 양상
- 중반 들어, 파월 의장 의회 연설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추가 긴축 강도가 높아 질 수 있다는 우려에 큰 폭 상승하며 1,320원대 진입
- 후반 들어, 중국 경제지표 예상치 하회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및 BOJ의 기존 통화정책 고수에 따른 영향 등이 원화 약세를 견인한 가운데 2월 미 고용지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원화 약세 흐름 속에 소폭 상승 지속하며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의 2월 비농업고용지표가 1월에 이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한 측면이 연준의 매파 성향 자극 요인으로 판단. 반면, 실업률이 전월보다 0.2%p 상승한 측면 등으로 달러의 방향성은 모호해진 상황. 이에 대해 연준 의장은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지표 확인 후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고용지표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환율에 그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 하지만, SVB 파산에 따른 위험회피 분위기가 커졌으나, 통화정책 여건으로는 빅스텝 인상이 다소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원화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일부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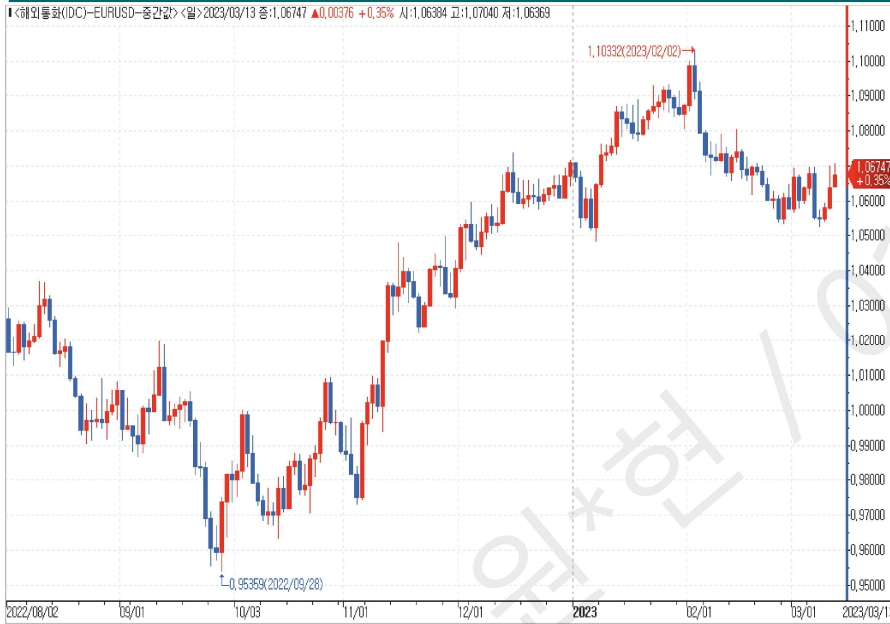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98.0	1329.0	1293.8	1324.2	+22.6

예상거래범위

1,300원 ~ 1,330원



엔·유로화 동향 (3/6~3/10)



유로화 동향

- 주초, 파월 의장 의회 통화정책 보고를 앞두고 매파 성향 강화할 것이란 우려 속 고용지표 대기하며 달러화는 혼조 국면을 보인 가운데 유로존 소매 판매 호조 등에 따라 유로화는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 흐름 출발. 이어 파월 의장 연설이 50bp 인상 가능성까지 내포한 강한 매파 성향 인식으로 미 국채 수익률 급등 등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 속에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미국 민간 고용 큰 폭 증가 속 여전히 고용 시장이 견조한 것으로 풀이된 가운데 유로존 GDP가 시장 예상인 마이너스를 탈피했음에도 약세 흐름을 좀처럼 되돌림 시키지 못하는 국면
- 후반 들어, 연준 매파 행보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가격에 반영된 측면 고려되며 유로화는 소폭 강세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고용지표가 혼재된 신호 보낸 가운데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3월 50bp 인상 전망 완화 속 미 SVB 폐쇄에 의한 파장 제한되며 유로화는 1.06달러 회복 속 소폭 강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636	1.0700	1.0524	1.0637	+0.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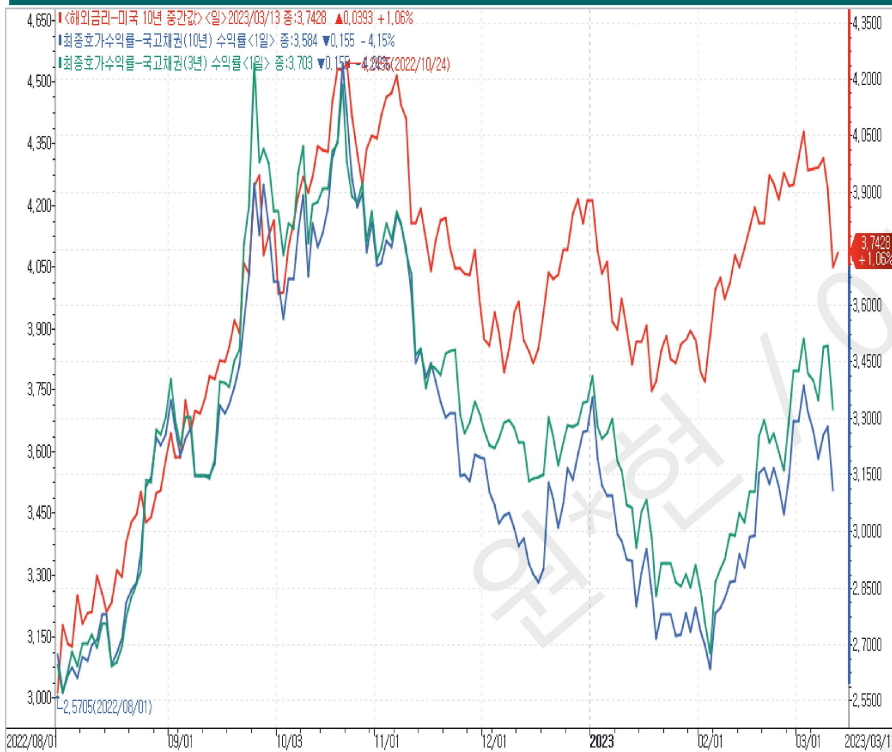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파월 의장 의회 발언 앞두고 매파 성향 강화에 대한 우려에도 일부 위원들의 25bp 인상 언급과 이후 고용지표 관망 및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춤해진 영향 속 엔화는 수급 영향에 따라 소폭 약세 출발. 이어 파월 의장의 50bp 인상 가능성 발언 등 매파 강화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 상승 등을 반영하며 약세 지속
- 중반 들어, 미국 민간 고용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나, 미-일 국채 스프레드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 영향 등으로 보험권 흐름 양상 시현
- 후반 들어, 연준 매파 성향의 가격에 대한 기반영 영향이 고려되며 미 국채 수익률 하락 전환 등으로 소폭 강세 시현 후, 주 후반, 미 고용지표의 혼재된 신호 속 실업률 상승 등으로 미 국채수익률이 하락한 영향 반영되며 소폭 강세. 다만 금정위에서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정책 등이 강세를 일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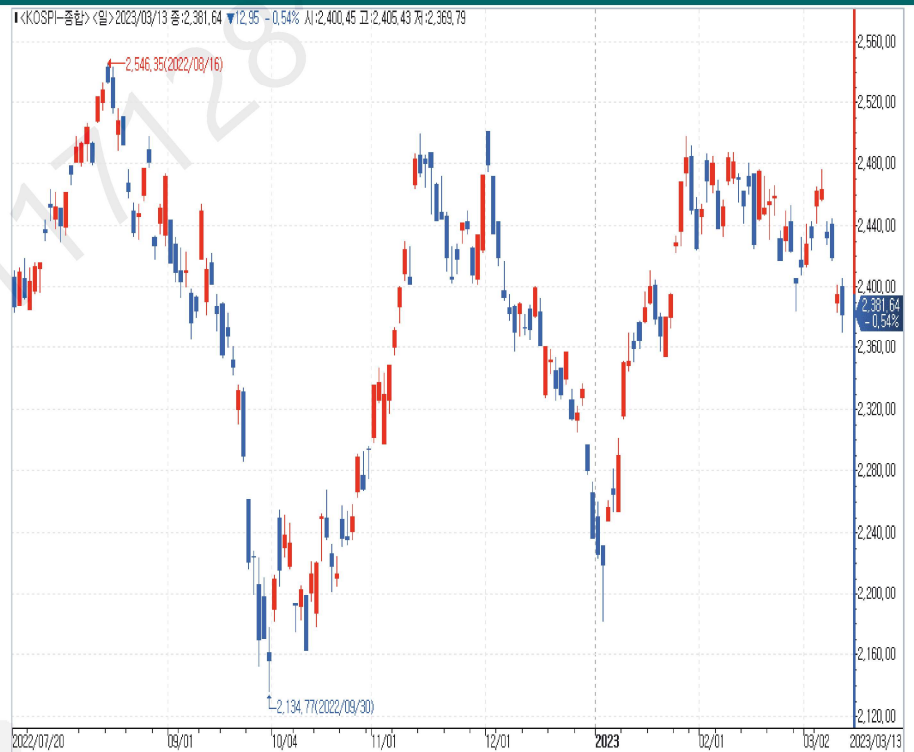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5.8	137.9	134.1	134.8	-0.97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3/6~3/10)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초,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점진적 금리 인상 지지 시사 속에 기재부 장관의 외부 충격이 없을 시,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전망된다는 발언 등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하락 출발. 이어, 호주 중앙은행의 물가 정점 평가와 한은 총재의 연말 물가가 점진적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 언급 등에 금리는 추가 하락 시현
- 중반 들어,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에서의 최근 경제 지표를 반영한 긴축 강화 의견 시사 등 매파 성향 강화 반영 등으로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강화 속에 다소 상승 흐름 이어진 가운데, 주 후반, 미 은행 시스템 우려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재차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우려에도 일부 연준 위원들의 25bp 금리인상에 대한 적절성 표명 등이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중국 양회에서의 다소 낮은 성장 목표에도 불구하고, 대만 이슈에 대한 평화적 접근 제시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연준이 고강도 긴축 할 것이라 경계감 속에 파월 의장 의회 연설을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 시현
- 중반, 파월 의장 의회 발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가 완만한 가운데 50bp 인상 가능성까지 추가 긴축 강도가 높아 질 수 있다는 우려에 큰 폭 하락
- 후반 들어, 전일의 연준 의장의 매파 영향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중심 순매도 강화로 하락 추세 이어진 가운데, 주 후반, 미 2월 고용지표 발표와 연준에 빅스텝 우려 반영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 확대되며 2,383 선으로 후퇴하며 마감